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근로자의 날과 노동의 종말

산기지로 바뀌는 종이다.

항간에 떠도는 ‘인구론’은 대학정신이 실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모순을 보여준다. ‘인문계 대학생의 90%가 는다’는 자조와 푸념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항변이라기보다, 일찍이 ‘노동의 종말’을 예고한 제러미 리프킨의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에 의한 인간 노동의 탈취’라는 무서운 지옥의 묵시록을 간과한 자책에 가깝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 늦도록 취업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은 ‘근로자의 날’이 점차 폐허화 되어 가는 지구생명 공동체를 탈출해 찾아가갈 수 있는 ‘희망 행성’과도 같다. 그들은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열정과 청춘과 건강과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남비족’이 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돌진한다.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다는 걸, 취업을 해도 10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좀처럼 인정하려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에서도 이런 ‘과잉 노동력’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속담은 오늘의 청년들에게 소중한 교훈이다.

각국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문명사적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뿐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를 바꾸려면 정권 교체를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차선 아니면 차차선이 라도 찾아야 한다.

창업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한 모험길 치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권유하는 문법 속에는 ‘성공은 개인의 창의와 열정과 도전정신에 달려 있다’는 ‘국가 책임 회피론’이 어긋나기도 모른다.

21세기 지구촌 시민들은 어차피 이래도 어렵고 적재도 어렵다. 컴퓨터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 시와 미술과 음악 등이 결합하는 예술적 역량이 오히려 ‘인구론’의 위기에 대처하는 역설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유심히 귀 기울여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예견된 미래다. 다만 창의성은 현실적 구현 능력이 견비되어야 꽃을 피울 수 있으므로, 미래의 대학들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노동이 사라지는 ‘무서운 지옥’의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최근, 외국 대학을 졸업한 뒤 그곳에서 대학 관련 유통시스템으로 창업한 후 우리나라에 지사를 세우고 싶어 방한한 한국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아이템을 보니 흥미로웠다. 대학 내 단체 티셔츠나 학과 점퍼 등에 대한 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학들이 상표와 상호 등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공급이 핵심 개념이었다.

마침 여러 대학들이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되어 이 같이 잠신했던 사업 아이템을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나는 이 도전적인 청년이 성공하길 바란다.

그는 ‘무서운 지옥’에 미리 대처하고 있는 ‘퍼스트 무버’이며, 각 대학과 제휴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창의적 상상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길 속에 대학의 내일을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사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칼럼

금연, 성공하고 싶으세요?



윤주하
우암병원 내과·금연클리닉 원장

적 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며, 구강을 포함해 인두, 후두 등에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흡이 차고 가래가 많은 만성 기관지질환, 목이 간질거리며 가래가 끓는 만성 기침, 콧물과 재채기를 유발하는 만성 비염, 목소리가 변하는 후두질환 등이 모두 흡연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질환과 증상은 담배를 직접 피우는 흡연자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 동료들이 원하지 않는 간접 흡연을 하게 됨으로써 함께 겪을 수 있다. 특히 면역력과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간접흡연 노출을 통해 급성 호흡기 질환, 중이염,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암과의 관련성도 많이 알려져 있다. 흡연과 폐암에 대한 인과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으며 그 밖에도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등의 상부 소화기 암과 비뇨기계 암의 원인이 된다.

2014년 미국 보건부에서 발간된 ‘흡연의 건강 결과에 관한 보건교육 보고서’에서는 흡연이 이미 알려진 위의 질환외에도 고혈압, 대장암,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단 발병이 되면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담배가 해로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나와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야겠어!’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일단은 금연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나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 금연을 마을수록라도 이를 실행하거나 성공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70% 이상이 금연을 원한다고 하며, 이들 중의 약 30% 정도는 실제로 금연을 시도해본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과는 상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곤 할까.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니코틴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 니코틴은 담배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로 뇌의 여러 신경 전달물질을 자극해 불안·초조감의 감소, 각성, 기분 전환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이

지만 대략 하루가 지나면 내성을 가지게 되어 효과가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초기엔 니코틴 의존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흡연을 하다가 나중엔 흡연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 흡연을 하게 된다. 이 때가 되면 담배를 줄이거나 중단하면 초조, 불안감, 집중 곤란, 우울감, 불면 등의 금단 증상이 느껴지므로 금연이 쉽지 않다. 또한 금연 시도 기간 중에 흡연 욕구를 느끼게 되는 상황에 자주 노출돼 금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금연을 결심했다면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금연 결심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흡연 욕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 가법제 산책을 하거나 비흡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오랜 기간의 흡연 습관으로 중독된 니코틴 의존증을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겨내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럴 경우에는 패치나 껌 등의 니코틴 보조제나 약물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까운 병원의 금연클리닉을 찾아 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받아 보는 것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금연 성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社說

호남發 민심 이반 새정치연합 재·보선 참패

29일 광주 서구를 등 4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완패를 당했다. 광주 서구에는 무소속 친정배 후보,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를, 경기 성남 중원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참패는 호남 발(發) 민심의 이반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방인 광주에서마저 무소속이 내주고, 호남세가 강한 서울 관악을도 새누리당 후보에게 빼앗겨 호남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이는 새정치연합에 염증을 느낀 민심의 폭발이자 호남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친노 중심으로 당이 이끌리면서 소위 ‘덧발’이라는 호남을 외면해 왔다. 그들은 호남이 그렇게 소외를 당해도 꾀파싸움과 기득권 안주에만 혈안이였다. 선거 때만 되면 ‘구애’를 했지만 그 이후엔 ‘남의 일’ 취급을 했던 것이다.

특히 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 최근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성안촌 리스트’ 파문 등을 감안한다면 새정치연합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완패를 당한 것은 민심 외면에서 비롯된 국민의 준엄한 경고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리더십 위기와 함께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로 거듭나 수권정당을 향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은 목소리를 사모잡고, 당의 화권인 계파를 청산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압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친정배·정동영 등 거물들이 출마해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성안촌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인사 탕평, 경제 민생 등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

송정역 주차장 태부족, 승객들 안중에 없나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광주 송정역 주변이 주차난에 휩싸여 있었다. 역사 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승객들이 역 인근 시장과 골목길까지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매일 ‘주차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송정역 주차장은 총 400면으로 승객이 많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는 차를 댈 곳이 없어 일반 승용차들이 장애인·경차 전용공간까지 침범하는 가하면 통로를 제와하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모두 차량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역 앞 왕복 6차선 도로의 양쪽 1개 차선은 아예 주차장으로 변했다.

대로는 물론 인근 주택가와 상가 도로까지 주차 차량으로 넘쳐나 시민들의 불편이 도출되고 있다. 또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까지 도로를 점유하면서 역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다.

송정역 주차난은 주차장 건립이 애초

부터 영터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 규모가 처음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넓게 잡혀져 있었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줄이면서 문제는 예고됐다. 공단 측은 예상 승객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축소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차장 증축이 대안이 없다. 송정역 인근 8개 사설·공용 주차장에 800여 면이 있지만 하루 이용객 1만~1만5000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용객 숫자가 비슷하면서도 역사 규모와 주차장이 2배 정도 큰 울산역도 시민의 불편이 많다니 송정역 증축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승객들이 KTX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쾌적하고 신속한 이동이다. 주차할 곳이 없어 역 주변을 수차례 돌다 멀리 떨어진 골목에 주차하고 허겁지겁 뛰어오는, 심지어 열차까지 놓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코레일과 광주시는 속히 주차장 확보에 나서야한다.

無等鼓

금호산업 인수전은 호반건설이 예상보다 낮은 금액을 써냄으로써 일단 유찰됐다. 최종 유찰 및 재입찰 여부는 다음 달에 결정되겠지만 재입찰보다는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수의계약이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써 호남을 기반으로 한 두 기업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기업이 비익연리(比翼連理)처럼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리지(連理枝)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글같은 ‘비익’과 ‘연리’로 잡았다. 마침 잊고계

나지 불회사에 있는 연리지를 보고 온 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익연리란 비익조(比翼鳥)와 연리지(連理枝)를 합친 말이다. 양귀비와 당련종 간의 비련(悲戀)을 읊은 백낙천(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보인다. “죽어서는 비익조가 되고(在天願作比翼鳥) 이승에서는 연리지가 되자(在地願爲連理枝)” 했던 그 사랑의 맹세.

비익조(比翼鳥)는 날개가 하나뿐인 전설 속의 새이다. 그래서 암수 한 쌍이 한데 합쳐야만 제대로 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비’(比)는 나란하다는 뜻이

‘익’(翼)은 날개다. 연리지만 서로 다른 나무의 뿌리나 가지가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면서 결이 통하여 하나로 된 나무를 말한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남녀의 소망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의 ‘연’(連)은 이어진다는 뜻이요 ‘이’(理)는 나무의 결이다.

춘불회(春佛會) 추내장(秋內藏)이라 했던가. 세상이 온통 초목으로 물들어 바람조차 초목이 된 듯한, 그래서 초목의 바람

이 살랑대는 초목의 터널을 지나 당도한 불회사(佛會寺). 그곳에서 본 연리지는 그 어느 것보

다 아련(?) 모습이었다.

절 입구 오솔길 옆. 거대한 단풍나무와 느티나무는 그렇게 오랜 세월 몸을 섞은 채 사랑을 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진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 위에서 진한 사랑의 나무가 죽을 때까지 이 밤이 더디 새기를 바라다니 얼마나 지독한 사랑인가. /이홍재 논설교

기 고

안전 실천은 행복의 시작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

안전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신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예견하면서부터 시작되고,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부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다가 각종 재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형성된 배경에는 1960년대 이후 빨리 잘살아 보자는 시대적 욕구에 따라 모든 일을 원리·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성과 위주로 대충하려는 적당주의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안전보다 이익·효율만을 중요시하는 황금만능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산재 사망자 수도 1만명당 10.1명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재난 발생도 증가하고, 국가기반시설들도 30년 이상되는 노후시설이 2014년에 9.6%에서 2024년 21.5%로 늘어나게 되는 등 노후화 진전에 따른 시설물 위

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오양병원 화재사고, 판교 환풍구덮개 붕괴 사고,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생명과 재산, 가족 등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 안전에 투자하게 되는 이상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보게 된다. 사고 후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재난을 컨트롤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영역의 시설물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물과 교통수단 등 눈에 보이는 위험뿐 아니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

신문고’를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신고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야 안전한 사회는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구석까지 살펴서 결에 있는 아주 작은 위험까지 개선·관리한다면 안전은 행복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전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함께하는 안전신고와 안전 대진단이 안전사회를 만들고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일 4일이다. 하지만 우리생활에서의 안전점검의 날은 매일매일이어야 한다. 이제는 안전이 일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생활속의 작은 습관이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고, 가족과 동료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 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하고 활기있는 사회는 안전이 생활화 되어 체질화될 때 만들어 질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여 론 매 체 부 2200-696 | 광 고 매 케 링 국 227-9600 |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
| 정 치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3 | (F A X 227-9500) | 다 자 인 실 2200-536 |
| (대표 FAX 222-4918) | 사 진 부 2200-697 | 디 자 인 실 2200-555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부 2200-663 | 조 사 부 2200-571 |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